

기능인력 육성과 최저가제 폐지



정해돈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모든 분야가 그렇듯 건설업의 미래도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건설업은 생산 활동이 주로 옥외현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주문 생산방식의 노동집약형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업의 힘은 현장이며, 현장의 경쟁력은 우수 기능 인력의 확보와 양성에 좌우된다.

지난 10월 건설업계 내빈자격으로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석했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대회는 건설기능인의 발굴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여 매년 개최된다. 금년에도 전국 공사현장에서 14개 직종 272명의 기능인력들이 평소 쌓았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 평소 기능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던 터라 새벽 일찍 도착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다.

이유는 이렇다. 대화를 나눈 참가자 대부분이 저임금에 대하여 지적했고, 심지어 어느 기능공은 10년 전 받았던 임금과 현재 임금이 별 차이 없다고까지 호소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0년 근속을 기준으로 건설근

로자의 경우 초임 평균임금 대비 32% 임금이 증가(연간 1%)한 반면,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162% 증가(연간 5.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기능경력을 백날 쌓아봤자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같은 건설인으로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지금 건설 현장엔 젊은 기능공이 씨가 말라 기능전수는 고사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이번 대회 참가자 대부분도 40대 이상이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능인력 가운데 40대 이상의 비율이 77.4%로 10명 중 8명 가량이 40대 이상 장·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노령화율(40대 이상 비중)이 59.0%임을 감안해도 건설현장은 무려 18.4%나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현장의 작업은 상당한 육체적 근력을 필요로 하므로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는 건설생산기반의 약화와 건설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건설의 밑뿌리인 현장 기능 인력이 무너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 정부 모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답은 하나로 귀결된다. 어렵고 힘들고 더럽다는 3D 업종으로 취급 받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타 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인력이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고 본다.

우선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한다. 저가낙찰에 따른 피해의 최말단에는 항상 현장 건설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기능인력의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체불임금을 유발시킨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 낙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과 노동시간 연장으로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결국 현장 기능인력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약 5만 6천개의 건설기능인력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졌다. 건설 재해를 상위 10%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10곳 중 9곳이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된 공사현장이란 분석도 있다.

건설기능인력의 처우개선과 적정임금 지급, 더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입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며칠 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해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전국 각지에서 물려든 성년 건설인들의 손에 무산된 것은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 건설업계는 무척 힘들다. 힘들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저기에서 발표되는 복잡한 건설 경제지표를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공사원가를 나타내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지난 7년간 55.5%나 올랐지만 정작 공공공사 입찰 단가 산정기준인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하락했다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건설산업 경쟁력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쇠신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발주자, 건설업체,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과정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마주앉았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건설업계에 산재돼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특히 건설현장에 경쟁력 있는 우수 기능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지난 11월 16일자 건설경제신문 시론에 게재된 내용으로, 회원사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건설경제

2011년 11월 16일